

感傷紀行 5

金 錫 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드롤리 레인에서 85. 11. 11

정보는 기억장치의 단순한 메모리로서 어떠한 종합적 이해의 키보드에서 한 부분으로 적절히 구사될 수 있어야 정보구실을 할 것이다. 자기기반이 없는 과도한 지식은 논어의 “배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는 경구를 생각해 한다.

아랍어코스틱스에 가서 해리슨을 만난다. 피카소 그림에 나오던 사람중의 하나 같다. 두눈이 얼굴의 넓이의 삼분지 이쯤되고 코는 길이의 반쯤된다. 입도 약간 나오면서 커서 아-하면 턱밑이 떨어질것 같다. 그러나 멀쩡한 좋은 엔지니어다. 무대에서도 일해본적도 있고 이 사무실에만 9년씩이나 있었던 사람이다. 논리도 정연하고 학자류의 이론을 넘는 에스프리도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사물의 골격도 알고 변조도 아는 사람이다. 잠시 의심했던 것보다는 리포트를 열심히 우리에게 써 준것 같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음향적 언급은 정곡을 찌르는 감이 있다. 단순한 음향만이 아니라 사건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줄 수 있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도 있는 사람이다. 위컴과는 대조적이다. 생긴것도 그렇고 정작 실력이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의 진실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보너스도 있구나 싶다. 이 친구가 알려준 빌딩 복습에 가서 음향에 관한

책을 세권 산다. 해리슨의 오페라하우스에 관한 지적들은 먼저 2,400의 객석의 오페라하우스는 경영적 측면은 이해가 가나 음향적으로 무리이므로 단순히 객석당 크기보다 모든 면에서의 고려가 우선하여야 하며 여러 관점간의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잔향시간은 1.2초에서 1.7초 사이로 곡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짜트는 오류백명 정도의 관객을 전제로 휘가로를 작곡하였으나 바그너는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였고 곡의 특성마다 극적분위기가 다르므로 대체적으로 1.5초가 적정할듯하다. 구라파의 오페라하우스는 관객들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잔향시간이 적고 미국, 영국처럼 가사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잔향시간이 커진다. 소리의 명료도는 반사면에 관계가 있으며 넓은 홀의 경우 초기 반사음의 효과가 적고 특히 객석중앙이 어렵다. 무대속의 음향은 무대가 크고 오케스트라핏이 깊어 한때 싱거를 위한 반사판을 두기는 하였으나 자체 반사음 때문에 무의미하여 오히려 셀디자인 할때 음향적 고려를 하면 좋을 것이다. 대개 오케스트라핏에서 기수의 소리를 못듣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다. 핏트로 소리를 보내기 위해 프로세니엄 근처의 평면 반사판이 필요하다.

스톨 중앙은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중앙천정이 높아 천정반사가 없으므로 직접 음에 의하는 수 밖에 없어 양측벽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정의 곡면은 초점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실지로 많은 오페라하우스에

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곡면은 가수에게 세소리가 돌아와 좋다. 곡면은 항상 반경안에 관객이 없도록 해야 한다. 큰문의 경우 음향차단은 공사후 6개월 가량은 괜찮으나 그후 대개 문제가 생기므로 바다과의 연결은 들어올려서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연결 부분의 접합상세가 중요하다. 음향차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체에 익스펜션 조인트를 두는 것이 유효하고 벽은 40cm 정도의 두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좋은 음향을 가질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마치 시계처럼 내시 사분전 코벤트가든으로 간다. 톰은 이름처럼 좋은 사람이다. 주말에 열심히 우리 시방서를 읽어 주었고 사심없는 언급을 해준다. 살다보면 좋은 사람이 도처에 있기는 있는 것이다. 마침 폴스테이지 리허설이 있다해서 헨델의 세밀르를 같이 본다. 이런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는 처음 본다. 오페라는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 배튼이 할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 막들이 만드는 정경이 다양하기도 하다. 젊이 이쁘게 큰 프리마돈나의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환상의 무대를 보고 있으니 자못 행복하기까지 하다. 총체극 운운하던 세미나의 교수들은 웃는다. 빈 객석에 스테이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폴 스테이지 리허설에의 참여를 즐긴다. 이러다가보니 또 예약된 시간이 되었다.

드롤리 레인에서 사십이번가를 오늘 저녁에 가장 나쁜 박스에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과연 미국스럽

오페라하우스에서 열은 재료의 사용은 음향효과에서 중요한 저수파를 흡수하므로 피해야 하고 적은 볼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딱딱한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오케스트라 뿔은 물론 무대위의 가수외도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를 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목이 반쯤 선 여자와 청순가련한 거리 여자 같은 준소녀, 지쳐있으나 열정이 아직 남은 대장, 그리고 잘나고 잘난 젊은 청년이 만드는 무대는 뉴욕 그 자체같다. 세밀르에서 보던 문화적 환상 대신 여기는 오늘 문명의 윤택한 유희가 있다. 가볍지만 건강하고 씩씩하지만 나쁜 즉물적 인간군의 페이스스가 화려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펼쳐진다. 오늘도 그러고 보니 또 바쁜 하루였다. 바람 풍자인 웨스트엔드의 장피집에 또 가서 이번에는 용기를 가지고 이것 저것을 시켜본다. 지쳤지만 즐거운 하루였다. 오늘은 새벽녘에 여러 여자꿈을 꾸더니 화류계 같은 하루가 된 셈인가 보다.

제프 · 찰스 사무실에서 85. 11. 13

세차를 사서 의기 양양한 존과 함께 제프 · 찰스의 사무실로 간다. 외채 외채 하면서 살들하는 것이다. 무언지도 모르고 외국에 일을 맡긴다. 입바른 버러지들이 이렇게 외

국사람 횡재를 시킨다. 그러나 역시 제프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이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도 훌륭하다. 이들은 창고도 아무지게 지었던터라 사무실로 개조해도 워낙 그렇게 한것 만큼 충실하다. 회안한 것은 바로 건너편이 공동묘지다. 바로 붙어 있다.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 가서 쉴 모양이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기본형은 많이 좋아져 있으나 중요한 초기 반사음을 위한 프로세니움 부근의 양벽 복스와 천정이 직설적이어서 지나치게 강한 효과가 있으므로 면의 요철을 통해 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것은 건축적 효과를 기대한 실내장식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프로세니움 바로위가 평면이 되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가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평탄면은 가수의 소리를 객석에 전하는데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스칼라가 좋은 음향을 가진 것으로 다들 말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오케스트라 뿔과 프로세니움 부근의 처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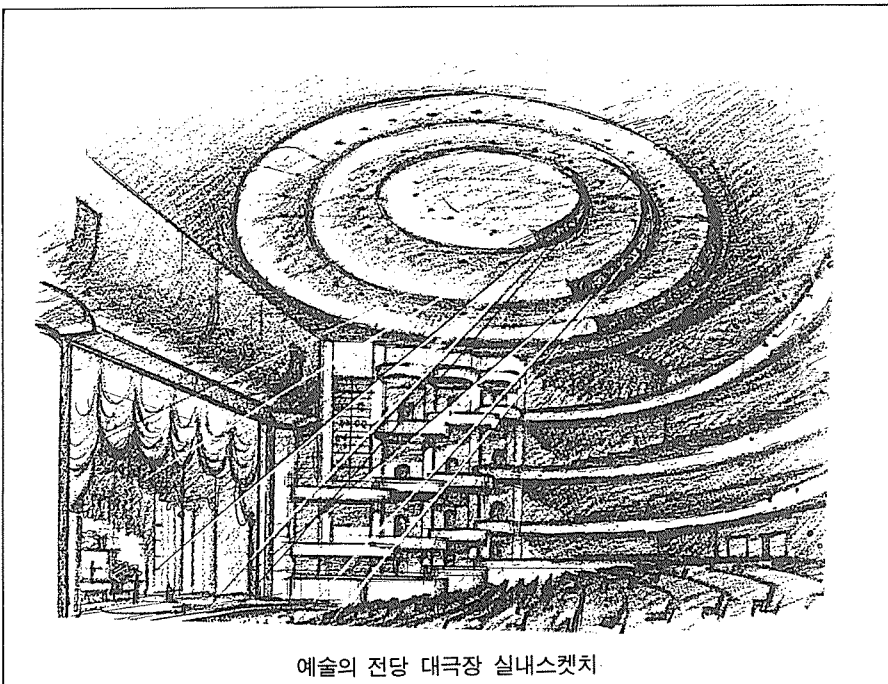
아럽어고스틱스에서 볼륨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제프는 다른 의견을 말

한다. 고전형식의 오페라홀은 대공간과 말굽형의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어 볼륨 그 자체가 작아도 좋은 효과가 있으나 최근에 와서 많은 객석을 수용하기 위해 채용된 컨서트홀 형식을 가미한 경우는 대 공간과 발코니 공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산술적인 볼륨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굳이 비교하자면 대 공간만을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우 현재보다는 볼륨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한다. 작은 볼륨의 경우는 전기음향장치를 동원할 수 밖에 없으나 큰 경우는 여러 방법이 다 가능하다.

최근 오페라 하우스를 짓거나 개조할 때 재정적 이유로 해서 객석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 잔향시간을 과거와 같이 1.2초에서 1.1초 사이로 하기보다 거의 2초까지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의 여러 경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층 스킵부분과 최상층 객석은 오페라하우스 특유의 대공간을 체험할 수 있으나 2,3층 발코니의 뒷줄은 음향은 그런대로 좋으나 그런 공간적 참여의 느낌이 적으므로 오히려 2,3층 발코니를 줄이고 상층발코니를 키우고 2,3층에는 양측 박스를 키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잔향시간을 키우는 것은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는 좋으나 성량이 큰 가수만 살아남게 되므로 우리의 경우 오히려 볼륨은 줄이는 것도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하우스에서 열은 재료의 사용은 음향효과에서 중요한 저수파를 흡수하므로 피해야 하고 적은 볼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딱딱한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오케스트라 뿔은 물론 무대위의 가수외도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를 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음악당에서 최근 정리된 우리 안은 음향 효과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무대위의 반사판이나 잔향시간 조절판 등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현학적인 컨설턴트들의 장기인데 우리와 같이 기본형이 만족할 만한 경우에는 그런 잔짓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다. 특



예술의 전당 대극장 실내스케치

음악당에서는 모든 사이클의 음향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가적 욕심의 공간형식을 컨설턴트가 묘수로 풀어가는 방식보다 역시 전통적인 기본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 음악당에서는 모든 사이클의 음향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가적 욕심의 공간형식을 컨설턴트가 묘수로 풀어가는 방식보다 역시 전통적인 기본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비칸센터의 음향설계자가 음향의 실패로 결국 죽은 애기를 들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106%의 몰트위스키를 선물받고 음향실험을 위한 1/50 모델 구경까지 했다. 그래도 위کم 덕이다. 신교수 생각이 난다. 누구든 다 큰 흐름에서 보면 결정적 공로자들이다.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이 잘 되는 법이다.

마지막 날에

85. 11. 13

이제 집에 가는 날이다. 어느사이에 보름이 지났다. 폭 잠겨 있던 일상의 와중을 문득 빠져나와 잊어버린채 보름이 지났다. 바쁘기도 하였으나 이년 가까이 해온일의 마지막 점검같은 날들이라 정신이 없기도 하였다.

뮤닉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무대의 웨곤 이동장치와 엄청난 창고, 추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웨곤을 타고 백여명의 합창단이 앞으로 밀려오는 신,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환상적인 세밀르의 무대장치, 내셔널 오페라 하우스의 기발한 의상들을 하루걸러씩 보면서 그간 그려온 것을 정리하려니 내가 어디서 왔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제 는 무엇을 좀 알듯은 하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페라를 셋, 오페레타를 하나, 뮤지컬을 하나 모두 다섯 공연을 보았다. 발레는 뮤닉 오페라하우스 무대 위 아래를 세번씩이나 오르내리느라 마늘을 결국 보지 못하였지만 추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뉴른베르그의 대가수를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일 트로바토레를 세들러즈 웰즈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보았고 내셔널 오페라하우스에서 올피우스 인 언더월드를 보았다. 로

열 오페라하우스에서 홀 드래스 리허설로 세 밀르를 본것 까지하면 모두 여섯공연을 본 셈이다. 그리고 보니 구라파에서 라 스칼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위한 공연은 물론 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 모두를 본 셈이다.

일년전 비엔나의 슈타트 오페에서 라보엠을 보았을 때나 6개월전 로열오페라에서 다시 라보엠을 보면서 무대 상하 좌우를 오르내릴때와는 전혀라고 할만큼 느낌이 다른 삶의 새 단계들이 있다. 진진할수록 구석 구석 모를것만 더 많아지고 결정적인 것 같은 부분들이 갈수록 쌓여간다. 작년 한해 기세 좋았던 허장성세의 꺾질을 벗고나니 이렇게 초조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일이 없었으면 잊고 살뻔했던 무대위의 여러 경험은 자랑스럽다. 이번일로 해서 무대위의 열망을 알듯해졌고 삶의 한 귀중한 체험을 겪었다. 책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감정이 입을 경험하였고 서구문화의 한 국면을 감동스럽게 겪기도 하였다.

무대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기도 한다. 이제는 차츰 우리의 안도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 자꾸 욕심만 키우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열떨결에 밀리기도 할 때는 일단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만미터 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시야가 크면 바쁠 일이 없다. 아무리 바쁘고 빨라도 이처럼 구만리 창천의 높이에서면 모든 것을 조감하면서 나를 수 있는 것이다. 조금하여 잃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가. 세사의 와중과 거리를 유지하여 그속을 유명할 지혜가 필요하다. 조금증은 대국을 보기보다 그저 그때 그때의 잡사에 생애를 거는 마치 하루살이 같은 인생관 탓이기도 할 것이다. 주위에 지저분한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버려지와와 싸움에 대국을 거는것은 자가 당착 그 자체일 것이다. 비켜서 보면 얼마

나 우리가 허망한 일에 과도히 몰두해 있는 지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하여 할 일도 있기는 하다. 비켜선다는 것은 일의 와중을 몸으로 겪는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다. 허구한날 비켜서 있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사람같은 것이다. 일의 과도한 몰두와 문득 멀리 설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일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인·온더·파크 호텔에 왔던 때가 일년전인데 먼 옛날같다.

작년 올해 두해동안 참 많은일이 있었다. 열떨결에 무대앞으로 밀려나 왔으나 아직 조명에 눈이 부신다. 조금씩 어둠속에 관객들이 보이기는 하나 대사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출연자들과의 어울림도 모른다. 그저 무대위의 처량맞은 허전함은 알듯하다. 객석의 편안함대신 택한 무대위의 모험은 아직 어설프다. 이제 겨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안다.

작년 이맘때는 많이도 마셨다. 두번째 눈 수술 하면서 자리를 간신히 잡은듯 하였으나 일의 크기로 해서 아직 서둥대고 있다. 작은 일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되었던 조금함이 이 일에서는 짐이 되고 있다. 전체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관용이 부족하다.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바쁘고 부지런해야 될 때에 나른해진다. 자신만이 아니고 같이 일할 사람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각 사람의 개인적 영역을 키워 나가면서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스트레이션도 잘못하고 있다.

누구나 다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무엇들을 모두에게 다 하게 하면서 전체를 끌고 가야 하는데 한 소리만 요란하다. 함께 있는 사람의 개발을 통한 성취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